정보·컨설팅·투자·금융서비스까지

조용병의 혁신성장 플랫폼 닻 올리다…'10-10-10' 목표

〈신한금융 회장〉 〈10만 가입자-10만개 일자리-10개 유니콘 육성〉

신한금융그룹 '이노톡' 오픈

금융권 최초 그룹차원 기업 지원
신한 혁신금융추진위원회 성과

혁신산업 범위 확장, 원스톱 지원
고객요구 반영해 지속 업그레이드

신한금융그룹이 컨설팅부터 투자, 금융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이노톡'을 선보였다. 이노톡을 발판으로 10만 가입자·일자리 10만개·10개 유니콘 기업 육성 등 '10-10-10 달성'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30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차원의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인 '이노톡(INNO TALK)'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신한금융이 혁신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꿈과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데 신한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전 그룹사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금융권 최대 규모의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노톡은 추진위의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성과다. 추진위 출범 당시 조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선제적 구축을 주문했다.

이노톡은 '신한금융에 오면 창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목표로 제공 서비스와 대상 고객, 혁신 산업의 범위를 확장한 창업 관련 원스톱 플랫폼이다.

'혁신(Innovation)'과 '소통(Talk)'의 의미를 담은 이노톡은 신한 미래전략연구소 이성용 대표가 지난 9개월 간 직접 진두지휘했다.

이 대표는 "그간 예비창업자들과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법인설립 절차와 각종 계약서 샘플 등 의외로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다"며 "창업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 고민의 산물이 바로 이노톡"이라고 설명했다.

이노톡은 기업 간 소통 기능이 강화된 고객 참여형 플랫폼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자문단을 구성해 컨텐츠 구성에 생생한 현장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또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 투자 및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창업 관련 단계별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노톡은 크게 ▲정보제공 ▲컨설팅 ▲투자 및 금융서비스 총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정보제공은 창업 관련 각종 정보와 정부 정책, 관련 산업 보고서 등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한 '정보수집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인큐베이팅과 네크워킹으로 구분되어 있는 컨설팅 영역은 '성공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금융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신한금융의 혁신창업 프로그램(신한퓨처스랩, 두드림스페이스, 소호사관학교 등)의 노하우를 집대성해 창업, 벤처,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경험을 온라인으로 계승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사업 파트너 서칭,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그룹 내 세무, 법률, 산업별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투자 및 금융서비스 영역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의 모험자본 투자 역량을 집중해 혁신 창업기업 대상 IR 라운드 개최, 투자 심사 신청 프로세스 구축 등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 향후에는 이용자가 업종,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1000여개 은행 영업점의 약 3000여 명의 기업금융전문가(RM)를 직접 연결해 주는 기능을 추가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동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이노톡 론칭과 함께 '10-10-10 달성' 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내 10만 가입자 달성 ▲2022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자체&외부, 고용유발효과 포함) ▲2025년까지 10개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이노톡을 기반으로 한 자체 목표로 달성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앞으로 이노톡을 고도화해 기업성장 지원 종합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노톡이 국내 혁신성장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사무공간 지원 확대 및 유관 단체·기관과의 제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산은, 'KDB생명' 네번째 매각 공고

11월 초 LOI 접수, 연내 우협 선정
2020년 초 매각 종료 목표로 진행

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일 KDB생명보험주식회사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초 매각완료를 목표로 KDB생명 매각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번의 매각 실패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주간사는 크레디트스위스(CS)·삼일회계법인이다. 재무실사는 삼일회계법인, 계리실사는 밀리만이 맡는다. 법무실사는 광장을 선임했다. 지난 8월 킥 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매도인실사 및 잠재투자자 앞 사전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공고 이후 11월 초 투자의향서(LOI) 접수 및 입찰적격자(short-list) 선정,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2020년 초 매각 종료를 목표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산은 안팎에서 예상 매각가는 4000억~5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절차를 다시 추진한다. /KDB생명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그룹 구조조정 및 생보사 부실화에 따라 사모펀드(PEF)를 통해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매각추진에도 최저입찰가액 하회 등의 이유로 적격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오픈API로 핀테크 혁신금융 지원

뱅크샐러드 대출 플랫폼 참여
개인 대출한도·금리 직접조회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시중은행 최초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뱅크샐러드 앱(App) 이용고객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금융사별 대출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뱅크샐러드와 공동 개발한 오픈API를 이용해 고객이 뱅크샐러드 앱에서 우리은행 대출상품의 개인별 한도와 금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신청은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앱에서 가능하며, 향후 뱅크샐러드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소액대출상품인 '우리비상금대출'을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제공한다. 우리비상금대출은 씬파일러(Thin filer)로 불리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통신사 신용등급(Tele-score)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상품이다. 최대한도는 300만원으로 1년 만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만 취급되며,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0% 포인트까지 우대된다. 30일 기준 최저 대출금리는 3.75%다. 우리은행은 향후 고객의 수요에 맞춰 한도가 상향된 신용대출과 자동차, 부동산대출 등 오픈API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API 표준규격안'마련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자인 레이니스트와 금융데이터 오픈API 제휴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오픈API를 활용해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와 마이데이터사업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개발 중에 있는 우리카드 오픈API와 함께 우리금융 그룹사의 오픈API를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하나원큐 간편로그인 하면 커피 쿠폰"

KBE하나銀, 로그인방식 변경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폰 뱅킹앱 하나원큐의 로그인 방식을 간편방식으로 변경하는 손님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하나원큐! 세~상 편한 로그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간편방식이란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증에서부터 6자리 숫자입력, 패턴 등 기존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ID),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로그인 방식을 의미한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나날이 다양화되고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방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손님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원큐의 로그인 방식을 간편방식으로 변경하는 손님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이들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홍민영 기자

한화생명, 건강관리 앱 '헬로'… 10년치 검진 정보 한눈에

한화생명은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헬로(HELLO)'를 30일 출시했다.

헬로는 건강을 뜻하는 영단어 '헬스(Health)'와 기록을 의미하는 '로그(Log)'를 합친 표현이다.

이 앱은 사용자의 건강검진정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활동량, 영양, 수면 등)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과거 10년치의 건강검진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건강 수준을 나이로 환산한 '생체나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한화생명이 건강관리 서비스 앱 '헬로'를 선보였다. /한화생명

또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고객을 위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활용한 식단, 영양 분석 기능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다른 건강관리 앱과의 연동을 통해 활동량, 수면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 분석해 차트로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수분섭취, 혈당, 체중 등의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건강 히스토리 관리도 가능하다.

이밖에 건강항목별로 나의 목표를 설정하면 기간별 평균, 목표달성률, 다른 사용자 그룹과의 비교 데이터 등의 리포트를 주간·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출시 이벤트로 앱을 설치하고 건강검진정보를 연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체중계를 증정한다.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하면 건강데이터를 고객이 보다 쉽게 앱에 집적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